

3월 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큰 폭 하락 [다우: 7,062.93pt (-1.66%)]	미 정부가 씨티그룹 지분을 확대하고 미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26년만에 최악수준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미 증시가 또다시 하락,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2월을 마감했음. 다우지수는 지난 한주간 4.1%, 2월 한달간 11.7% 급락했고, S&P500 지수도 지난 한주간 4.5%, 월별로는 11%하락을 기록하였음. 나스닥 역시 지난주 4.4%, 월간 6.7% 하락하였음. 다우와 S&P 지수의 월간 하락률은 사상 최대치 수준임.
씨티 사실상 '국유화'	재무부와 씨티그룹의 합의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보유중인 25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지분을 36%로 늘리게 됨. 재무부 지분의 전환가격은 주당 3.25달러로 전날 증가보다 32% 할증된 가격임. 씨티측은 당초 전환가격을 5달러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그룹 주가는 이날 오후 전장에 비해 40% 가까이 폭락한 주당 1.51달러에서 움직였음. 정부지분의 우선주 전환은 싱가포르 투자청(GIC), 알 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 민간주주들이 보유한 우선주 275억달러 역시 같은 조건으로 보통주 전환한다는 전제아래 이뤄졌음.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보통주 주주들의 지분율은 26%로 줄어 74%나 가치가 희석됨.
유가 하락반전 [WTI: \$44.76 (-\$0.46)]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발표 여파로 국제유가가 4일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음. 2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격은 전장에 비해 배럴당 46센트(1%) 떨어진 44.76달러로 마감했음.
미국 4Q GDP 26년래 최악	미 상무부는 이날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6.2%로 잠정치인 -3.8%는 물론 예상치는 -5.4%도 크게 밀돌았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1982년 이후 26년만에 최악의 수준임. 소비침체를 비롯, 기업재고와 무역수지가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률을 크게 갉아먹었음. 특히 소비는 고용대란이 이어지면서 근 30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침체되었음.
환율 11년만에 최고치 급등	지난주말 원/달러 환율은 1,534원을 기록, 11년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음. 당국이 일부 개입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시장 심리는 여전히 위로 열려 있는 듯 보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외화유동성 확충방안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외환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문제를 잘 활용하면 수출동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어 시장은 오히려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 점치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EU, 동유럽 구제금융 합의 실패	EU 정상들은 1일 브뤼셀에서 회담을 열고 금융위기에 직면한 동유럽권에 1,800억유로(2,280억달러)를 투입하는 구제금융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이날 논의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는 독일의 의견을 수렴해 구제안을 부결.
러' 새 '에너지 현장' 제안 계획	러시아가 국가 간 에너지 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현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일 이타르 타스 통신 등이 보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스페인 공식 방문을 앞둔 이날 스페인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4월 2일 열리는 런던 G20 금융 정상회의에서 새 에너지 현장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
외환보유고 2,000억달러	3일 2월말 외환보유액이 발표될 예정.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차례나 '2,000억달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속내를 드러내 시장에서선 그동안 마지노선처럼 여겨지던 2,000억달러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함. 리먼 사태 이후 500억달러 넘는 달러가 시중에 공급됐지만 환율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개입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 보이지만 이미 원화는 주요국 대비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라 방치해 둘 수만도 없는 상황임.
달러부족에 外人 채권 투자 실속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인 지난 1월 1조 600억 원에 이어 지난달 1조 8,200억원을 추가로 순매수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2조 8,800억원 어치의 채권을 순매수. 외국인들은 지난해 '9월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 채권시장에서 같은 해 10월 4조 1,707억원, 11월 8,068억원, 12월 4,898억원 등의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매수 우위로 태도를 바꿨음.
현대·기아차 9조 투자 '잡세어링' 동참	현대, 기아차 그룹은 1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차량과 고연비 소형차 개발에 집중하고 일관제철소 건설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 세부적으로는 친환경차 개발을 비롯한 연구개발(R&D) 부문에 3조원, 시설부문에 6조원이 투입될 예정. R&D부문의 경우 경제가 회복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연비 차량과 친환경차의 개발과 대중화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수출 30%줄면 일자리 100만개 감소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수출 감소에 따른 고용조정 압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수출감소율(33.8%)이 지속돼 연간 수출이 30% 급감하면 1년 후에는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개 주력산업 수출이 10% 줄면 관련업종에서 약 12만 명, 내수산업에서 최소 20만 명 등 전체적으로 32만명 이상의 고용감소 압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꼽은 9개 산업은 경공업과 유화, 철강, 기계, 자동차, 선박, 반도체, 정보, 기술(IT), 가전 등으로 지난해 수출의 84.5%를 차지한다고 밝힘.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